

# 바지락

2023년 6월호

바쁜 출근, 지친 퇴근, 즐겁게 바꾸자

- 2, 3면 특집 1 (2023 체감경기 · 임금실태 전국설문조사)  
산업단지(공단) 노동실태 결과
- 4, 5면 특집 2 (2023 체감경기 · 임금실태 전국설문조사)  
체감경기, 임금 요구 결과
- 6면 금속노조 가입해서 금속산업 최저임금 받아오
- 7면 QR코드 활용 꿀팁
- 8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 금속노조가 함께합니다

\* 제호 글씨 디자인 : 최진숙 금속노조 조합원





# 전국 산업단지 '위법' 천지

## 특집 1

### <2023 체감경기·임금 실태 전국설문조사> 산업단지(공단) 노동실태 결과

전국 7,509명의 노동자·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금속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설문조사를 잘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5,377명의 노동자 가운데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2,697명의 노동자가 들려준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금속노조는 공단노동자가 겪고 느끼는 노동환경과 임금실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더불어 한국 사회에 노동자·시민의 요구를 알리겠습니다. 살맛 나는 일터, 금속노조와 함께 시작합시다.

### ● 응답자 특성과 분포는 어떤지 살펴볼까요?

분류	세부항목	응답 수	분류	세부항목	응답 수
지역	서울	1,439	연령대	20대 이하	534
	경기	296		30대	1,147
	인천	152		40대	622
	대전충북	142		50대	314
	세종충남	26		60대 이상	80
	전북	55	종업원수	5인 미만	169
	광주전남	110		5인~19인	670
	대구	97		20인~29인	356
	경북	27		30인~99인	801
	경남	219		100인~ 299인	433
	울산	60		300인 이상	264
	부산	73		민간제조부문	1,210
				민간서비스부문	645
성별	남성	1,223	업종부문	공공 부문	133
	여성	1,470		건설	91
고용형태	정규직	2,075		기타	618
	비정규직	622			

**위법 천지 산업단지 실태 1.****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제대로 쉴 권리 보장하라.**

① 산업단지 노동자 10명 중 3명 이상(31.8%)이 휴게시설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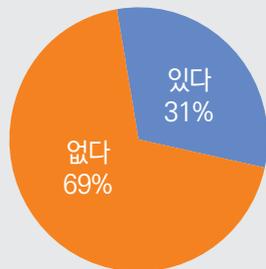
규모 20인 이상 사업장 중 27.9%가 휴게시설 ‘없음’.

-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어, 사업주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휴게시설조차 없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습니다.
- 2022년부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작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대책, 지식산업센터 안 공동휴게시설 설치 지원을 요구했고, 비용과 각종 지원방안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일터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받도록 더 확대해야 합니다.

② 산업단지 노동자 5명 중 1명(19.8%)은 공휴일·빨간 날에 ‘무급’으로 쉬고 있었습니다. 절반 넘는 노동자(54.0%)가 연·월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하더라도 무급이나 연차대체로 쉬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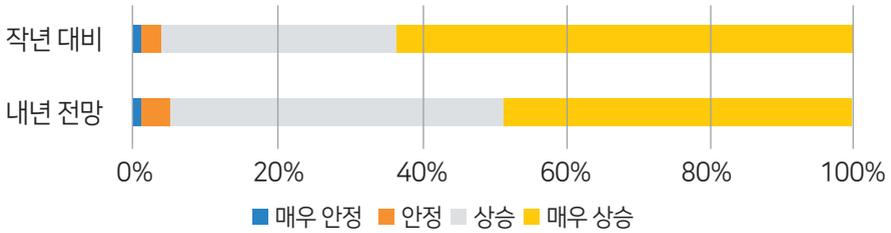
**위법천지 산업단지 실태 2.****강제로 무료 노동, 공짜 야근 그만.**

- 10명 중 3명 이상(31.3%)의 노동자가 무급여 조기출근, 무급여 잔업 등 ‘무료 노동’하고 있어.
- 5명 중 1명꼴로(19.9%) 회사가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아, 사업주가 포괄임금제 꼼수에 악용하고,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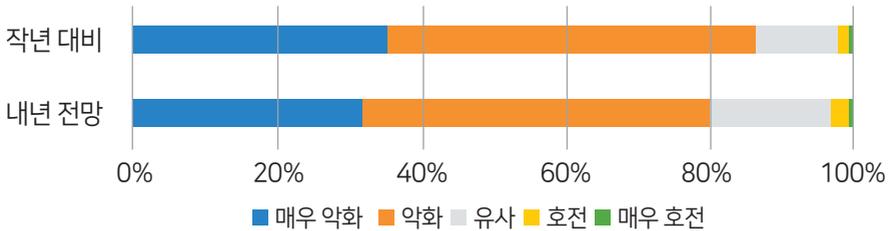


## <2023 체감경기·임금 실태 전국설문조사> 체감경기, 임금 요구 결과

### 산업단지 노동자 체감 물가



### 산업단지 노동자 체감 한국경제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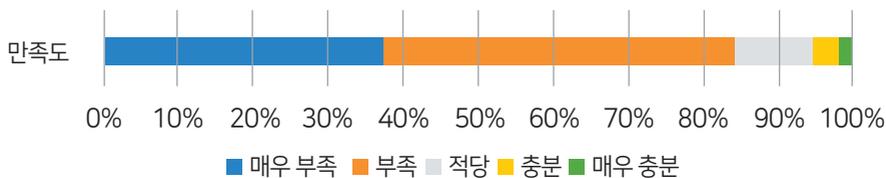


## ● 체감경기 악화, 물가 폭등 :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생활비로 '식비' 꼽아.

- ① 87.1%가 작년보다 한국경제 상황 '악화'.  
80.0%가 앞으로 1년간 한국경제 상황 지속 악화할 거로 생각.  
또한, 96.4%가 작년보다 물가 체감 '상승'.  
95.1%가 앞으로 1년간 물가가 지속 상승할 거로 생각.
- ②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생활비 1위 식비(39.8%), 2위 난방비·전기세(38.1%).

※ 산업단지에서 일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1위 난방비·전기세(45.8%), 2위 식비(30.6%).

### 현재 최저임금, 가족 생계비로 충분한가?



## ● 노동자가 요구하는 2024년 최저임금

- ① 83.7%가 현재 최저임금 가족 생계비로 ‘부족’.
- ② 3명 중 1명(33.2%)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월 230~249만 원(시급 약 11,000~11,900원)은 돼야 ‘생활 가능’. 27.8%가 월 250만 원 이상(시급 약 12,000원 이상) 요구.

※ 민주노총 2024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안 : 시급 12,000원, 월 약 250만 원.

- ③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48.7%가 물가상승률을, 25.6%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 12.5%가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를 선택함.



**최저임금 대폭 인상 위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지금?**

- ▲ 2024년 최저임금 시급 12,000원(월 약 250만 원)을 요구합니다.
-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해서, 노동자·시민의 체감경기와 임금인상 요구액을 정책대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 ▲ 금속노조가 6월 전국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찾아갑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커피트럭 몰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눠요.

최저임금 위반·주휴수당 삭감·공짜 노동·체불임금·법률·노조 가입 상담 ☎ 1811-9509

# 금속노조 가입해서 금속산업 최저임금 받아요

회사가 휴업수당도 안 줘요, 쉬는 날 연차도 까요, 최저임금 역시 안 줘니다. 억울해도 말 한마디 못 하고 지내왔어요. 노동조합 가입하니 싹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월급이. 더불어 현장 환경, 조건도 좋아졌어요. ‘무슨 노조야?’라며 망설이는 분들에게 노동조합에 꼭 가입하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금속노조 인천공단에서 일하는 조합원 김성자, 이은경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던 식대를 기본급 최저임금에 녹이려 했어요. 노동조합과 동료들의 힘으로 막아내고 임금과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고작 최저임금에서 조금 벗어나려는 작은 싸움이었지만, 혼자라면 절대 용기 낼 수 없었을 거예요. 노동조합 가입 전에는 묵묵히 일하면, 열심히 일하면 회사가 내 가치를 인정해줄 거라 믿고 다녔어요. 소리 내지 않으면 누구도 내 권리를 대신 찾아주지 않아요. 금속노조와 동료들의 힘을 믿고 함께하세요.

금속노조 서울 주얼리공장에서 일하는 조합원 조지은

금속노조에  
‘**금속산업  
최저임금**  
이 있다면  
서요?



네.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를 상대로 임금 단체교섭을 벌여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확보하고, 금속산업 노동자라면 동등하게 적용받도록 해왔습니다.

노조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왜 최저임금으로 살아야 합니까? 금속노조는 노조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금속산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금속산업 최저임금 적용받도록 노력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와 함께 우리의 삶과 일터를 바꿉시다. 함께라면 가능해요.



스마트폰 더욱  
스마트하게 쓰는 법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찰카



### 공단노동자신문 <바지락> 지난 호 보기

<바지락> 지난 호가 궁금하면 QR코드 찰카.  
노동자라면 꼭 알아야 할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때와장소를 #가리지않고 #만날수있는 #공단노동자신문 #바지락



### 민주노총 최저임금 특별페이지

정부 최저임금 정책은 뭘까? 민주노총은 어떤 정책과 대책을 내고 있을까? 나도 참여해서 의견을 밝히고 싶다면? 지금 바로 QR코드 찰카.

##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

### ☑ 한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

- 태어날 때부터 부자는 결정되어 있다, 더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
- 사회 약자끼리 조그만 이해관계로 싸우고 있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너무 멀리 있어 보이지 않는다.
- 희망을 품으라고 하지만,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곤 다수는 희망을 쉽게 말하지 않는다.
- 더는 결혼이나 아이를 낳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내 한 몸 돌보기도 힘들다.
- 아파트는 매일 올라가는데, 내 한 몸 편히 누울 곳 없다. 대출, 전세대란, 전세 사기로 삶이 불안하다.
- 소확행을 추구하지만, 미래에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 ☑ 우리 회사의 불편한 현실

- 비인간 대우, 비민주 사내 문화, 불합리한 해고와 징계가 일상.
- 회사가 잘 나간다고, 내가 잘 나가는 건 아니다.



나와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삶과 미래를 바꾸는 가장 큰 힘, 노동조합.....

무료 노동·법률상담, 가입문의 ☎ 1811-9509

#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최저임금 대폭 인상, 금속노조가 함께 합니다

## ▲ 열심히 일해도 통장은 '텅장'.

물가 폭등, 공공요금 폭탄, 실질임금은 하락.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2022년보다 5% 인상했는데, 실질임금은 오히려 5.5% 떨어졌어요.  
사장과 정부에게 '이 돈으로 살아봐'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 ▲ 언제까지 최저임금에 끄꿍 묶여 살 수 없어요.

누구나 생활이 가능한 임금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시급 12,000원 (월 약 250만 원)으로 최저임금 대폭 올리고,  
생활임금 보장받으시다.

# 최저임금을리고

6/23(금)

서울

6/20(화)

6/24(토)

인천 민주노총 경의대회

6/21(수)

시흥 안산 수원

6/22(목)

충북·충남

6월 13일(화)

구미·경주

6/16(금)

전북

6/14(수)

대구·경남

6/15(목)

부산·울산



온라인 서명

[bit.ly/최저임금인상서명](https://bit.ly/최저임금인상서명)



전국금속노동조합



당신의 삶과 일터를 바꾸는 일,  
금속노조가 함께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노크하세요.



최저임금위반 / 임금체불 / 부당해고 / 직장갑질 / 산재사고

무료노동상담·노동조합 가입 문의 ☎ 1811-9509